

정서발달 패러다임에서 본 영유아 조기 사교육의 한계와 정책적 과제

박성옥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부회장(대전대학교 상담학과 특임교수)

최근 우리나라 영유아 조기교육은 부모들의 높은 교육 열의와 사회적 경쟁 체제가 맞물려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하여 영유아 조기교육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영유아 시기 과도한 선행교육으로 인한 높은 위축, 불안 등의 다양한 정서발달 및 정신건강의 문제를 나타내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서발달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기 사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나 정책 마련과 교육기관이나 부모 차원에서의 개선점과 노력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 조기 사교육의 현실

가. 영유아 조기 선행교육, 97%가 “과열”... 발달 저해 우려 커져¹⁾

최근 우리 사회는 ‘4세·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영유아기부터 ‘더 빨리’, ‘더 많이’ 가르치려는 조기 선행교육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2025년 전국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177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영유아 조기 사교육 인식 교사를 통해 사교육에 참여한 영유아의 65.2%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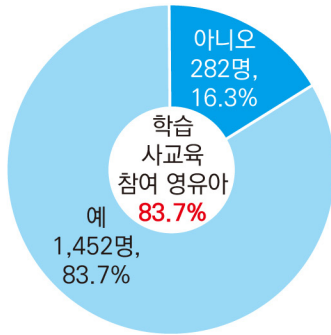
영유아 시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 중심의 적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크지만, 현실에서는 사교육에 기반한 조기 선행학습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제시하며, “영유아 학습 사교육 과열이 아이들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교육을 받는 영유아의 약 65.2%가 기관생활에도 어려움 겪는다”는 조사결과에 의거, 응답자의 97.1%가 영유아 학습 사교육시장을 “과열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인으로는 양육자의 경쟁심과 불안심리(54.1%)가 가장 컸고, 입시 위주의 교육구조(22.2%),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11.6%), 사교육 광고(7.3%)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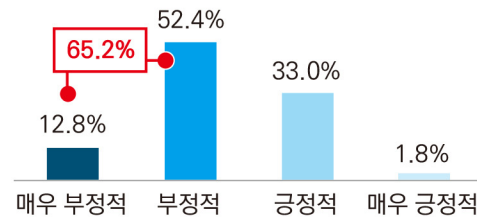
학습 사교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를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83.7%) 중 65.2%는 해당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적응 문제와 또래 관계 어려움을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사걱세는 “기관 유형(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구체적으로 자발적 학습 능력 및 사고력 저하, 전인적 발달 저해, 사회정서발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5).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①] 영유아 조기 선행교육의 현주소와 적기교육의 중요성. 정책자료보고서.

[그림 1]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 적응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기관생활적응 $n=1,733$



출처: 교육걱정없는세상(2025).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①] 영유아 초기 선행교육의 현주소와 적기교육의 중요성. 정책자료보고서 p. 3 (그림 2).

달 문제가 45%를 넘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밝히며, 초기 사교육이 특정 환경이 아닌 영유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자료 조사결과에 의거 “영유아기의 학습 능력은 놀이 경험과 자율성, 정서 조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초기 선행학습은 이러한 과정 자체를 훼손한다” 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영어학원 등 특정 사교육 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기관생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두드러진 경우로 교사 가운데 45.2%는 영어학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지도한 경험이 있다고 제시, 이들 중 81.9%는 해당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부정적 적응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한편 영어학원 부적응이 없는 아동 중 기관생활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 비율은 51.3%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영어 초기교육 열풍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나. 영유아 과도한 선행교육, 인권 침해수준... 더 늦기 전 제도적 보완 필요

최근 우리나라 영유아 초기교육은 부모들의 높은 교육 열의와 사회적 경쟁 체제가 맞물려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정부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사교육시장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 초기교육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영유아 초기교육의 주요 현황²⁾

첫째, 영유아 초기 사교육 참여율 및 비용의 급증: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만 5세 아동 10명 중 8명이 사교육에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3만 원을 상회하며, 특히 영어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41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영어유치원’의 고착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약 155만 원에 달하며, 일부 놀이학원 또한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등 보육보다 ‘학습’ 중심의 기관 이용이 늘고 있다.

셋째, 저연령화 현상: 과거 5~7세에 집중되었던 초기교육이 최근에는 2세 이하 영유아(주당 약 1.8

2) 김은영(2025. 7. 4.). 영유아기 사교육, 문제와 해결 방안은?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102호, 육아정책연구소

시간 참여)에게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소위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 테스트가 유행하며 선행학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 주요 문제점 및 부작용

첫째, 발달단계에 부적절한 ‘과잉 교육’³⁾

영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김영훈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는 이를 ‘적기교육’의 상실로 지적하며, 뇌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지학습이 오히려 창의성과 자기조절력 발달을 저해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조기교육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서의 뇌, 특히 긍정성과 자기조절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시각, 청각, 모국어 등 기초발달을 시켜야 할 시기에 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뇌 발달을 망치게 됩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정서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위협⁴⁾

천근아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는 뇌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지자극(영어, 수학 등 학습량)은 아이에게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비교, 평가 스트레스는 자존감 저하, 정서 불안, 우울증, 불안장애, 틱장애, ADHD 유사 증상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어릴 때 받아야 하는 정서적인 자극 대신, 독해추론 등 이상한 자극이 뇌에 들어오니 뇌가 망가지게 돼요. 지금은 반짝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엔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놀이권 및 인권 침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사회성을 기를 권리가

사교육 일정에 밀려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아동의 인권 침해’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교육은 인권침해 수준”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입장을 재차 환기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법률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 초기 사교육의 핵심 논쟁

가. 조기교육이나? 적기교육이나?

영유아 시기 교육의 핵심논쟁 중 하나인 조기교육(Early Education)과 적기교육(Timely/Age-appropriate Education)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1) 조기교육(Early Education)의 관점

조기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보다 앞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인지적 성취와 학습 선점에 초점을 맞춘다.

사례: 만 3세 아이에게 한글 읽기나 영어 단어 암기, 구구단 외우기를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이다, 아이가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문자를 변별하고 소리 내어 읽는 것에 집중한다.

긍정적 측면: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영재’의 경우,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⁵⁾

부작용: 뇌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지학습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 수치를 높여 정서 불안이나 주의력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3) 김영훈(2015). 적기두뇌. 경향미디어

4) 천근아(2018). 아이는 언제나 옳다. 아울북

5) 박경숙·유효현·이재호·김미숙·박지은(2007). 영재교육기관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7-18.

특히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에 문자 교육에만 치중하면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⁶⁾

2) 적기교육(Timely Education)의 관점

적기교육은 아이의 신체, 인지, 정서발달 속도에 맞춰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포착해 교육하는 방식이다.

사례: 만3~5세 시기에 글자를 암기시키는 대신, '놀이와 오감체험'을 통해 언어 감각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래놀이를 하며 "부드럽다", "단단하다"와 같은 형용사를 몸으로 익히거나, 그림책의 그림을 보며 다음 상황을 유추해 보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의미: 적기교육은 '빠름'보다 '올바른 순서'를 중시하여, 이 시기에는 지식의 축적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조절능력, 근육 발달이 우선시되어야 한다.⁷⁾

효과: 아이가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발달단계에 맞는 자극을 통해 뇌의 신경망(시냅스)이 건강하게 형성된다.⁷⁾

나. 영유아 시기 과도한 조기교육은 정서발달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조기교육은 뇌 발달 불균형을 초래하여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3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는 정서가 급격히 분화되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골든 타임이다. 영유아의 정서발달은 생애 초기 형성되는 '정서적 기

초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서 조절 능력과 애착 관계는 성인기의 사회성과 성격 형성의 밑거름이 된다.⁸⁾

1) '정서교육'이 '조기 인지교육'보다 중요한 이유

첫째, 뇌 발달의 우선순위: '정서의 뇌'가 먼저 열린다⁹⁾

인간의 뇌는 아래에서 위로, 뒤에서 앞으로 발달한다. 생존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정서의 뇌)가 먼저 발달한 후, 사고와 학습을 담당하는 전두엽(이성의 뇌)이 발달한다. 정서라는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인지라는 '건물'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쉽게 무너지게 된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는 뇌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여 학습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학습 효율성의 열쇠: '정서적 안정감'¹⁰⁾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려면 호기심과 탐구심이 필요하데, 이는 안정적인 애착에서 나온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이것이 곧 높은 인지적 성취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교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셋째, 사회적 역량의 기초¹¹⁾

영유아기에 형성된 자기조절능력과 공감 능력은 인지능력보다 미래의 성공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이다. 혼자 잘 읽는 아이보다 타인과 협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사

6) 김영훈(2012). 아이의 공부두뇌(EBS <부모> 공동기획). 베가북스.

7) 김은설·최윤경·배운진·도담희·김문정(2014),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8) Allan Schore(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Emotional Develop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9)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10) 김효원·손승현·양찬모·이태엽·정재석·김은주·박지인·송지혜(2023). 공부하는 뇌, 성장하는 마음. 글항아리.

11) 이경남(2006),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학교준비도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5호. 721-731.

회적 지능을 발휘하게 된다.

2) 학계와 상담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한 구체적인 사례들

영유아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자극보다 정서적 안정이다. 그러나 사교육이 과도해지면 아이는 불안, 위축, 산만함, 공격성 등 정서적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4년에 발간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¹²⁾ 영유아기 사교육을 주당 5시간 이상 받는 유아들이 불안, 위축, 주의산만,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의 개수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들은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격성, 위축, 우울, 불안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증가했다. 학습 스트레스, 일정 과부하, 부족한 휴식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임상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아이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교육"이 독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면 놀이 치료나 부모 상담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청소년기 학습 무기력이나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 사례 1 : 과잉 학습으로 인한 ‘아동기 우울증’ 및 ‘무기력증’

본 사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도한 학습량을 소화하던 아이가 결국 정서적으로 고갈되는 사례이다.

사례: 7세 아동 A군은 영어유치원과 수학 학습지

등 하루 5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있었다. 어느 날부터 평소 좋아하던 놀이에도 흥미를 잃고 이유 없이 복통을 호소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했다. 검사 결과, 소아 우울증과 함께 학습 거부 증세가 나타났다.

관련자료: 신의진 교수(연세대 소아정신과)의 저서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및 여러 논문에서 "조기교육 스트레스가 아이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정서적 공허함을 만든다"고 경고하며, 이를 ‘과잉 학습 증후군’으로 명명했다.¹³⁾

이 외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2016년 보고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교육 개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지고 정서 조절 능력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다.⁹⁾

■ 사례 2. ‘반응성 애착장애’와 유사한 정서적 위축

본 사례는 인지교육에만 치중하여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애착 관련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사례이다.

사례: 생후 24개월부터 플래시 카드로 단어를 외우게 하고 원어민 비디오를 장시간 시청하게 한 B양은 또래보다 인지능력은 높았으나, 정작 부모와 눈을 맞추지 않고 혼자서만 중얼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병원 진단결과,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핍으로 인한 ‘가짜 자폐(유사 자폐)’ 증세가 의심되었다.

관련자료: 《우리 아이 괜찮아요》의 저자 서천석 박사(소아정신과 전문의)는 다양한 매체 기고와 강연을 통해 "조기교육이 아이의 사회적 뇌 발달을 가로막아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¹⁴⁾ 이 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신의진 교수는 영유아기에 사람과의 상호작용 대신 일방적인 주입식 교구 수업이나 영어 영상물에 과도하

12) 김은영·구자연·김지원·김혜진·김재철·김종근·조숙인·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3) 신의진(2006).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서울: 걷는나무.

14) 서천석(2014), 우리 아이 괜찮아요. 서울: 김영사.

게 노출된 아이들 중, 선천성 자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맞춤이 안 되고, 호명 반응이 없으며, 또래와 소통하지 못하는 자폐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한 사회성 결손(퇴행)을 보이는 아동들의 임상 사례를 상세히 보고하였다.¹⁵⁾

■ 사례 3. ‘틱 장애’ 및 ‘강박 증세’의 발현

본 사례는 완벽을 요구하는 교육 환경에서 오는 불안이 틱이나 뚜레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사례: 6세 C군은 한글쓰기 숙제를 할 때 글씨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심하게 울며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이후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쿵쿵거리는 ‘틱(Tic) 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 압박이 아이에게 극심한 불안을 유발한 것이 원인이었다.

관련자료: 김영훈 교수(가톨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는 저서《적기두뇌》³⁾에서 내 아이의 뇌 발달에 속도를 맞춰라라고 강조하며 뇌의 편도체가 공포와 불안을 느낄 때 기저핵의 조절 기능이 무너져 틱 장애나 강박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뇌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뇌 발달을 억제하는 주범이며 정서 조절에 성공한 아이가 후천적 공부 머리도 강해진다는 메커니즘을 언급하였다.¹⁶⁾

■ 사례 4. 뇌 발달 불균형 (과도한 좌뇌 자극)

본 사례는 우뇌 발달시기에 좌뇌 발달(논리, 분석) 위주의 교육을 시켜 정서적 메마름이나 정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이다.

사례: 5세 아동 D군은 영어 읽기는 능숙했으나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

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뇌파 검사결과, 우뇌보다 좌뇌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미성숙한 상태였다.

관련자료: 문용린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영유아기에는 도덕성과 정서 지능이 먼저 발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기 인지 교육이 뇌의 균형 잡힌 발달을 저해한다는 임상 데이터를 제시했다.¹⁷⁾

3 초기교육의 장기 추적 연구사례들

초기교육이 단기적인 증상을 넘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Longitudinal Study) 사례들은 교육학 및 심리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인지 중심 교육’과 ‘놀이 중심 교육’을 받은 집단을 수십 년간 추적한 연구들이 정서적 건강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가. 하이/스코프페리유치원프로젝트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ject)

본 연구는 초기교육의 질이 성인기 정서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장 유명한 40년 이상의 장기 추적 연구이다.¹⁸⁾

연구내용: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수법(지식 전달형)’과 ‘아동 주도적 학습(정서 및 사회성 중심)’ 집단을 나누어 40세가 될 때까지 추적했다.

연구결과: 유아기에 과도한 인지적 압박이나 지시 위주의 교육을 받은 집단은 성인이 되었을 때 놀이 중심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부적응,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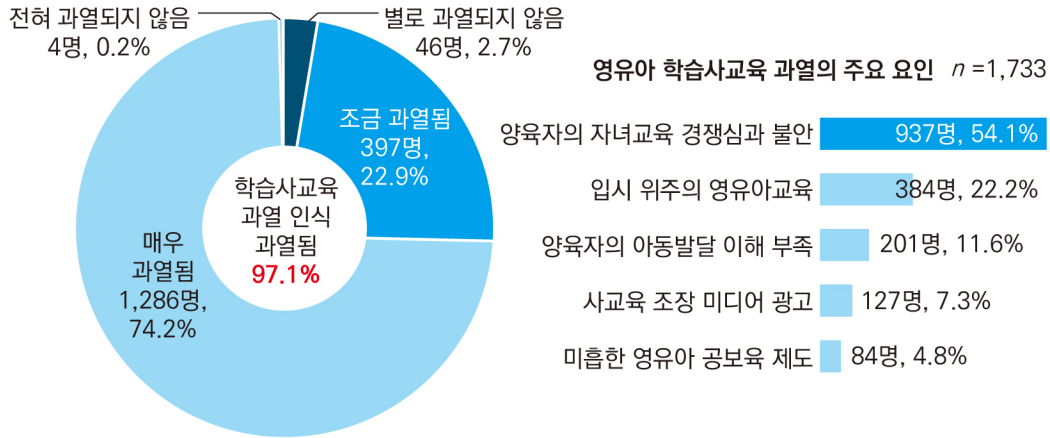
15) 신의진(2009). 초기교육 리포트. 갤리온.

16) 김영훈(2012). 아이의 공부 두뇌: 성적이 올라가는 공부 두뇌 만들기. 베가북스.

17) 문용린(2001). 부모가 아이의 지능을 높인다: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자녀교육법. 서울: 동아출판사.

18) Schweinhart, L. J., et al. (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High/Scope Press.

[그림 2] 영유아 학습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



출처: 교육걱정없는세상(2025).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①] 영유아 조기 선행교육의 현주소와 적기교육의 중요성. 정책자료보고서 p. 2 <그림 1>.

서적 불안정, 범죄율, 약물복용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정서지능의 결핍이 장기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밝혀졌다.

나. 레베카 마르코니(Rebecca Marcon)의 학업 성취 및 적응 추적 연구

유치원 시기의 교육 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정서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¹⁹⁾

연구내용: 워싱턴 D.C.의 아동 351명을 대상으로 아동 주도적 환경(정서 중심)과 교사 주도적 환경(조기 인지 중심)에서 자란 아이들을 6학년(만12세)까지 추적했다.

연구결과: 6학년이 되었을 때, 조기 인지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아동 주도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낮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정서적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높았다. 연구자는 "너무 이른 학업적 압박이 아이들의 학습 동

기를 꺾고 정서적 무기력(Burnout)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다. 독일의 조기 인지교육 실패 및 회귀 연구

독일 교육계에서 1970년대에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조기 인지교육' 정책의 결과를 분석한 사례이다.²⁰⁾

연구내용: 독일 정부는 1970년대 초, 인지교육 중심의 유치원과 놀이 중심의 유치원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했다.

연구결과: 인지교육을 일찍 시작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성적이 높았으나, 4학년(만 10세) 이후부터는 놀이 중심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추월당했다. 더 심각한 점은 조기교육 집단에서 정서적 위축, 친구 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문제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다.

참조: 이 연구결과로 인해 독일은 70년대 중반 유치원 교육 과정을 다시 '놀이와 정서 중심'으로 회귀시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19) Marcon, R. A. (2002). Moving up the grades: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 model and later school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

20) Daniel Goleman, Paul Kaufman & Michael Ray (1992). *The Creative Spirit*, Dutton.

라. 에드워드 지글러(Edward Zigler)의 '헤드 스타트' 추적 연구

미국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지글러 박사는 단순 인지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했다.²¹⁾

연구내용: 초기 학업후련이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간 관찰했다.

연구결과: "초기 인지교육은 일시적으로 IQ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발적 동기, 정서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훼손한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제시된 이러한 장기적 연구로 추적된 사례들을 통해 최근 영유아 시기 초기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추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인지 성취의 우월함은 짧게 지속되지만, 그때 입은 정서적 상처와 사회성 결여는 평생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뇌과학적으로 만 3~6세는 정서와 도덕성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변연계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이때 좌뇌 위주의 인지교육에만 치중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반쪽짜리 성장'이 일어날 위험이 큼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재 한국의 누리과정에서 왜 '놀이 중심'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

4 초기 사교육 열풍의 현실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과 '인성 및 정서 발달'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초기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현상들은 주로 어떤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다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고 여겨진다.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심리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개선할 방안과 대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부모의 심리적 불안과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지배적이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이 영어유치원이나 사교육 수학학원을 다니는 것을 보며, 아이의 적기 발달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심리적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SNS와 맘카페 등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서, 내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초기교육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있다.⁹⁾

나.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 구조(상향식 불안)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이지만, 그 상위 단계인 초·중·고 교육과 대입 제도는 여전히 '상대평가'와 '변별력'에 집중되어 있다. 부모들은 "결국 나중에 경쟁해야 한다면,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선행학습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⁹⁾

다. 양육자의 아동 발달 이해 부족

영유아기를 뇌 발달의 황금기로 인식하며, 이 시기에 지식 정보를 주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영유아기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반드시 '학습의 효율성'과 직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정서적 안정과 오감체험을 통해 뇌의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임에도, 양육자들은 이를 문자나 수리 학습의 적기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¹²⁾

21) Zigler, E., & Bishop-Josef, S. J. (2006). The Cognitive Child vs. The Whole Child: Lessons from 40 Years of Head Start. Oxford University Press.

라. 사교육시장의 공포 마케팅

“아이의 지능은 6세 이전에 결정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식의 뇌과학을 빙자한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이 부모들의 죄책감과 불안을 자극한다.²²⁾

마.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벌 자본주의

공교육이 아이의 개별적인 수월성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좋은 학벌이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학벌 자본주의’ 믿음이 조기교육을 일종의 ‘보험’처럼 여기게 만든다. 즉, 학벌 중심주의와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이로 인해 입시경쟁의 출발점이 초·중·고를 넘어 영유아기까지 내려오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²³⁾

5 조기 사교육 문제 개선 및 대책

영유아 시기의 지나친 조기 인지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세상을 탐색할 기회와 정서적 근육을 형성할 시간을 빼앗는 것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수많은 자료와 연구결과가 증명하듯, 아이의 인생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고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정서적 토대에서 나온다. 조기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 교육기관 차원, 부모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의 질적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보다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5가지 핵심과제로 하고자 한다.

1)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및 놀이 중심 질적 제고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표준을 ‘학습’이 아닌 ‘발달’에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놀이 중심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 명칭만 ‘놀이’일 뿐 사실상 인지학습을 강요하는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영유아 놀이권 보장 지침’을 법제화한다. 둘째, 교사-아동 비율의 획기적 감축: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정서적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는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여, 사교육기관보다 월등한 교육 여건을 공교육에 구축한다.

2)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등 변칙 사교육기관 관리 체계화

학원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초등 교과를 선행학습하는 영유아 대상 고액 학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학원 명칭 사용 및 허위·과장 광고 단속: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학원을 엄격히 단속하고, “두뇌 발달”, “영재 육성”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마케팅 문구에 대해 영유아 교육 광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둘째, 교습비 상한제 및 공시 의무 확대: 영유아 대상

22) 교육부·통계청 보도자료 (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3) 권순형·서무계·이강주·이희현·양희준·이정우·이진권(20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4). 한국교육개발원.

학원의 고습비 구성을 세부적으로 공시하게 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 평당 교육비를 고려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 국가수준의 '영유아 발달단계별 가이드라인' 보급

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생애 초기 부모교육' 의무화 및 체계화: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과 연계하여, 영유아기 뇌 발달 특성과 초기교육의 부적절성을 교육하는 '부모교육 이수제'를 도입한다. 둘째, 표준발달진단 서비스 제공: 사설 검사 기관의 상업적 진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아동의 정서·신체 발달 상태를 과학적으로 체크해주고 상담해주는 공공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된 '선행학습 금지법' 강화

초기 사교육의 근본 원인은 초등학교 입학 후 겪게 될 학습 격차에 대한 공포이다.

첫째, 초등 1~2학년 교육과정 내실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 한글이나 수를 완벽히 익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기초 문해력 및 수리력 책임 교육제'를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입학 전형 및 초등 평가방식 개선: 영유아기의 학습이력이 초등학교 생활이나 평가에 어떠한 유리함도 주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서술형 및 활동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5)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Living Lab)와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지원

사교육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예체능 교육 수요를 지역 공공인프라로 흡수한다.

첫째, 우리동네 놀이 거점 확대: 아파트 단지나 마을 단위에 '공공 놀이카페' 또는 '창의 놀이터'를

확충하고, 이곳에 전문 놀이활동가를 배치하여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지역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박물관, 미술관, 체육회 등 지역의 공공자원을 영유아 교육기관에 개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상생형 교육 모델'을 표준화한다.

나.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노력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 저학년)은 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고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발달환경을 제공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교육기관의 핵심가치는 사교육이 '결과(성적, 진도)'에 집중할 때, 교육기관은 '과정(성장, 행복)'에 집중함으로써 차별화된 교육의 질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방안 4가지를 제시한다.

1) 발달단계에 최적화된 '놀이 중심' 커리큘럼의 전문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인지·정서·신체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이 레벨(High-level) 놀이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첫째, 학습지 대신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단어 암기나 수 연산 반복 대신, 아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도입한다. 이는 사교육이 제공하기 어려운 '고등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워주게 된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아날로그 놀이의 조화: 무분별한 코딩교육보다는 블록놀이, 로봇교구 활용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의 기초를 다지는 비전형적 코딩놀이를 강화한다. 셋째, 생태·예술 경험의 일상화: 숲 체험, 목공, 연극, 악기 연주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정규과정에 깊이 통합하여, 사교육 예체능학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한 예술적 경험을 누리게 한다.

2) 부모 맞춤형 ‘교육 철학 공유’ 및 전문 상담 강화

부모의 불안은 정보의 부재에서 온다. 교육기관은 부모와 교육 가치관을 공유하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첫째, 정기적 ‘아이 발달 기록’ 공유 시스템: 단순한 출결 확인을 넘어, 아이의 사회성 발전, 정서적 안정도, 창의적 문제 해결 장면 등을 기록한 ‘성장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우리 아이가 학원을 안 가도 충분히 잘 자라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둘째, 부모 참여형 워크숍 및 코칭: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아이의 놀이방식에 참여해보는 ‘부모-자녀 놀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올바른 양육태도를 현장에서 체득하게 한다. 셋째, 심리전문가 연계 상담서비스: 교육기관 내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지역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조기 사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과 불안을 느끼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상시 운영한다.

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리빙랩(Living Lab)’ 구축

학교라는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사교육의 경계를 허문다. 첫째, 지역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은퇴 과학자, 예술가, 장인 등 지역 내 인적 자원을 교육과정에 결합한다. 이는 학원강사가 줄 수 없는 깊이 있는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둘째, 마을 교육 공동체 연계: 도서관, 박물관, 지역 공원 등을 ‘제2의 교실’로 활용하여 교실 안의 정적인 수업에서 벗어난 역동적인 체험교육을 상설화한다. 셋째, ‘방과후 놀이 거점’ 역할 수행: 정규수업 종료 후에도 사교육기관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기관 내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교사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 강화

교사는 부모가 가장 먼저 신뢰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첫째, 최신 뇌과학·발달 심리 연수 의무화: 조기 인지교육이 영유아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교사가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를 전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교사-학부모 ‘신뢰 서약’ 캠페인: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지양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통해, 기관과 가정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화를 조성한다.

다. 부모차원에서 노력

조기 사교육 문제의 해결 키를 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결국 부모이다. 부모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양육가치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아이들은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누릴 수 있다. 부모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양육 가치관의 전환: ‘학습’에서 ‘역량’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지식 암기가 아니라 회복탄력성과 자기주도성임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비인지적 기술(Soft Skills)의 가치 인정: 영유아기는 인지학습보다 감정 조절, 공감, 끈기, 호기심 같은 ‘비인지적 기술’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남들보다 빠른 한글"보다 "스스로 신발을 신는 성취감"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적기교육’의 원칙 준수: 뇌 과학적으로 영유아기의 과도한 인지 자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을 분비시켜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²⁴⁾ ‘남들보다 빠르게’가 아닌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게’ 기다려 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24) 이기숙(2015). 적기교육: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는 최적의 양육법, 글담.

2) 가정 내 환경 조성: ‘놀이’와 ‘대화’의 회복

사교육에 맡기던 시간을 부모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으로 채워야 한다. 첫째, ‘안전한 놀이’ 시간 확보: 하루 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이나 교구 없이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부모가 반응자로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노출 절제: 사교육형 영상 매체나 학습 어플리케이션 대신, 부모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림책과 오감을 활용한 자연체험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3) 정보 필터링: ‘불안 마케팅’으로부터의 독립

상업적인 교육시장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와 비교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건강한 정보 공동체 형성: 불안감을 조장하는 맘카페나 단톡방의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체험학습이나 공동육아를 실천하며 심리적 지지를 얻는다. 둘째, 공신력 있는 전문가 채널 활용: 검증되지 않은 교육 컨설팅보다 국가나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과학적인 발달 정보를 신뢰하고 활용한다.

4) 아이의 신호(Sign)에 귀 기울이기: 개별성 존중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결정적 시기’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관찰자로서의 부모: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세심하게 관찰한다. 부모가 설계한 커리큘럼에 아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보이는 관심사에 맞춰 적절한 환경(도서관 방문, 전시 관람 등)을 제공하는 서포터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자율성 존중: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준다. 사교육으로 짜인 뻘뻘한 일정은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훼손하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멍 때리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유아 초기 사교육과 정서 발달의 관련하여 정부, 교육기관, 부모차원에서 제시한 노력해야 할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부모 개인의 인식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 몇 가지 종합적 제언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구조적 대책: 교육 및 채용 시스템의 변화, 대학 입시 및 서열화 완화 등으로 들 수 있다. 대학의 서열을 완화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역량을 존중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해 능력 중심 채용 확대로 학벌이 아닌 실제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가 정착되어야 초기 학벌 경쟁의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제도적 대책: 사교육 규제 및 공교육 내실화와 초기 사교육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권(Rest and Play)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의 연계성 강화로 유치원에서의 ‘놀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초등 1, 2학년 교육과정 역시 활동 중심, 정서 중심의 유연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적 대책: 부모교육 및 인식 개선으로 적기교육 가치 확산을 통해 초기교육의 부작용과 적기교육의 효율성을 뇌 과학적·임상적 근거로 제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성공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정서적 회복탄력성, 사회적 협력 능력을 가진 아이가 인공지능 시대에 더 경쟁력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도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교육’ 활성화: 공동육아 및 돌봄모델 확대로 부모들이 고립되어 사교육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고 정서적 가치를 공유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공동체 교육모델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